

코로나 19가 대학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중심으로 -

The Effect of COVID-19 Pandemic on University Libraries: Forced on the Perception of University Librarians

정 재 영 (Jae-Young Chung)*

오 세 훈 (Se-Hoon Oh)**

초 록

코로나 19가 사회 전반은 물론 도서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도서관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역할과 서비스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이용자의 정보이용 및 커뮤니케이션 행태의 변화는 대학도서관이 갖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새로운 활용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학도서관에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의 영향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분석, 그리고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학도서관의 코로나 19 영향과 대응방안,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코로나 19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19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19로 야기된 변화가 대학도서관에 위기와 불안감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대학도서관계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대처는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서비스, 그리고 방향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COVID-19 has been affecting the library, not to mention society as a whole. Especially, there are many changes in the role and service of the university libraries as all the classes of the universities are turned into non-face-to-face and the use of the university libraries is restricted. The changes in users'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ehavior due to COVID-19 could be an opportunity for new utilization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he university libraries have and for the development of services. However, on the contrary, the university libraries could face another crisis if they fail to respond appropriately to current chang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rasp, analyze the impact of COVID-19 and plan how to respond. A survey on the effects of COVID-19 and the response of the university libraries and the perceptions of the university libraries found that most university libraries are responding appropriately to COVID-19. However, a survey on the perceptions of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university libraries under COVID-19 showed that many survey respondents think COVID-19 w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university libraries. This means that the changes caused by COVID-19 are causing a crisis and anxiety in the university libraries. Therefore, by working hard together, the university libraries need to present the university libraries' new role, service and direction in the post-COVID-19 era as well as respon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키워드: 코로나 19, 전염병, 대학도서관, 대응방안, 전략, 사서 인식

COVID-19, Epidemic Disease, University Library, Response, Strategy, Librarians' Perception

* 서강대학교 로열라도서관 학술정보기획팀장(jaeyoung@sogang.ac.kr) (제1저자)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atom@kw.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1년 8월 13일 논문심사일자 : 2021년 8월 17일 게재확정일자 : 2021년 9월 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3): 93-114, 2021.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1.32.3.093>

* Copyright © 2021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 19)이 사회 전체를 혼란과 공황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첫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와 유사하게 곧 종식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국가 간 경계 없이 지구 전체로 전파되고 있다.

코로나 19는 사회 전체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경제활동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다. 야외활동이 줄고 재택근무와 원격 교육이 증가하였으며,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던 많은 행사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쇼핑과 같은 통상적 경제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등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교육계도 비대면 교육과 디지털 자료의 활용 등 가상공간을 활용한 교육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대학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역할과 서비스에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각급 학교와 대학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중밀집시설인 도서관은 질병의 전파와 확산방지를 위해 서비스와 활동이 제한되거나 중단하였다. 특히, 장서와 공간이 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서관은 코로나 19 발생 이전에 유사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도서관이 갖는 공간의 의미는 단순히 책을 읽거나 열람실을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만이 아닌 사서와 이용자가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경험하는 공간이자 창의적 아이디어를 교

류하고 활동하는 장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 19로 인한 타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장서의 경우도 코로나 19로 인한 도서관 휴관 및 이용자들의 도서관 방문횟수 감소로 활용이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공간의 부담은 물론, 물리적 장서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고 있다. 전자책과 전자저널, Web DB 등도 도서관 자료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실물장서의 완전한 대체재라고 할 수는 없다.

코로나 19로 인한 이와 같은 변화들, 특히 비대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이용 방법의 전환은 인공지능(AI)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과 함께 향후 대학도서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언제나 새로운 기술은 이해 집단 간 갈등을 야기하기 마련이지만 특히 코로나 19로 빨라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은 도서관계는 물론 산업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코로나 19는 대학도서관을 위기가자 기회의 갈림길에 놓이게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가속화된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과 가상공간을 통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확대는 대학도서관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용자들이 도서관이 아닌 다른 대체재를 찾는 요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학도서관의 대처방안과 전략 수립은 향후 대학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코로나 19가 대학도서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즉, 코로나 19가 대학도서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대학도서관이 코로나 19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학도서관의 변화와 역할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국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와 국공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소속 회원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은 2021년 6월 11일 조사 협조 메일을 발송하였고, 조사 기간은 2021년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Online Survey를 활용하였으며, 응답 데이터 분석은 SPSS를 사용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코로나 19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대응

최근 대학도서관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속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와 장기적인 등록금 동결은 대학의 재정을 점차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교육 및 연구 여건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져 대학도서관의 인력 확보와 자료 구입 예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로 대표되는 디지털 신인류의 등장으로 대학도서관의 역할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서의 제공과 참고정보서비스로 대표되던 과거 대학도서관의 역할에서 창의적 활동과 휴머니티를 표방한 새로운 체험 및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 19로 촉발된 가상공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일상화로 대학도서관의 역할 및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외 도서관 관련 단체들이 코로나 19의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 주관한 포럼(국립중앙도서관, 2020)에서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들이 코로나 19에 따른 대처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전략적 대응방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 것도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유형의 도서관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대학 수업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이 현저히 감소한 대학도서관의 경우 코로나 19에 따른 대처방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외 대학도서관의 코로나 19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는 코로나 19에 따른 도서관의 대응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2021, April 21)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스트버그주립대학교(Frostburg State University) 도서관은 대학 내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도서관이 휴관한 이후에도 조용히 혼자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과 여럿이 같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

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디트로이트의 웨인주립대학교(Wayne State University) 도서관은 코로나로 인해 한번도 캠퍼스를 방문하지 못한 신입생을 위해 오리엔테이션 비디오를 제작해 제공하였다.

Hinchliffe와 Wolff-Eisenberg(2020, March 13)의 코로나 발생 초기 대학도서관 개방,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방법, 질병 대응방안 등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 발생 이후 많은 도서관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청소 및 방역 횟수가 증가하였고, 이용자들에게 손세정제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13개 조사대상 대학도서관 중 58%가 이용자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였으며, 56%의 도서관들이 강연, 워크숍 등 각종 공공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 소재한 5개 대학을 현장 방문해 코로나 19에 따른 대응 현황을 조사한 반자연, 이승혜, Panarelli(2020)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학도서관들의 경우 좌석 및 자료 예약제 실시, 도서관 출입 시 감염경로 추적을 위한 QR코드 스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집, 좌석 사용 현황 공유를 통한 내부 공간 밀도 관찰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납 자료의 살균 세척, 자료 대여 기간 연장, 데스크의 투명 차단벽 설치, 검색 PC와 열람 좌석 축소, 세미나 룸과 스터디 룸 폐쇄 또는 축소 운영, 손 세척 도구와 감염 방지 커버 설치, 식·음료 공간 폐쇄, 그리고 질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Cox(2020, June 5)는 코로나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대응방안에 대해,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온라인 교육지원 서비스 확장, 책상과 의자 숫

자의 축소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온라인 좌석 예약 서비스, 공용 컴퓨터의 축소, 공유 스크린과 같은 작업 환경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동진, 임동규, 지예은(2021)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 대학도서관의 업무와 공간 활용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108개 대학도서관(94%)이 코로나 19로 서비스를 포함한 기존 업무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예산도 67개 도서관(58%)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소규모 대학도서관이 대규모와 중규모 대학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 19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대학도서관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도서관 시설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학습지원서비스를 비롯해 과제물 큐레이션 서비스, 그리고 문헌 자료 택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소현, 2020, 6).

정진한(2020)은 코로나 19로 대학도서관이 휴관이나 제한 운영을 한 이후 재개관에 대한 문의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대학본부에서 도서관 정보서비스 홍보 요청이 이어지고 전자 콘텐츠의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코로나 19로 인해 대학도서관의 중요성이 오히려 커졌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대학도서관들은 코로나 19로 야기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는 물론 가상공간을 활용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대학도서관이 갖고 있던 역할 및 서비스가 완벽하게 현 상황에 적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 19로 비

대면 수업 및 가상공간 활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새로운 역할과 서비스의 개발이 아닌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그치고 있다.

현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기술은 인간의 인지 및 판단능력의 주도는 물론 지식정보사회의 판도를 획기적으로 바꿔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상업적 검색엔진의 발달 등으로 장소의 제한이나 도서관의 도움 없이도 정보요구를 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습과 연구를 위한 정보제공이라는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야기된 현재의 상황이 대학도서관이 마주해야 할 미래를 조금 더 앞당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 대한 대처와 미래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역할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2 선행연구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며 도서관에 미친 영향이나 대응방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19 초기에는 비대면 환경에서 도서관 제공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조사한 연구(노영희, 강필수, 김윤정, 2020; 박태연, 오효정, 2020)가 많았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온라인과 가상공간을 활용한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희운(2021)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서관의 서비스가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의 혼합된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정은, 강혜선(2021)은 코로나 19에 따른

국내 도서관계와 해외 도서관계의 동향 조사를 통해 국가도서관의 운영전략을 찾기 위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도서관 간 서비스 아이디어를 공유한 사례도 있다. 공공도서관협의회(2020)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 도서관의 대처와 서비스 사례를 모은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온라인으로 공개된 이 자료집은 현재 다운로드 건수가 1,000건을 넘어 많은 도서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도서관협회(ALA, 2021)도 코로나 19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 19로 변화된 도서관 이용과 접근성, 홍보 활동, 읽기 방식의 변화 등 도서관이 직면한 문제와 위기에 대처하는 도서관의 대응과 해결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우권(2020)은 10개 국립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이후 메인 홈페이지 운영 여부, 휴관 등의 공지, 문의 사항, 대출·반납 등 서비스 제공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기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휴관 시에도 지속적으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적절하게 인적 자원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혜은 외(2020)는 90개 대학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분석해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 현황 및 대처방안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모든 대학도서관에서 대출연장 및 온라인 학술전자자료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상공간을 통해 정보활용교육과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옥, 이용재(2021)는 국내 63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공공도서관 및 해외 도서관의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대학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연구자들은 뉴노멀 시대 대학도서관의 서비스로 '수업자료에 대한 비대면·온라인서비스 확대', '연구·학습 지원 큐레이션 확대를 통한 도서관 자원의 이용 활성화', '스마트도서관 구축 및 시설·공간서비스 혁신',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확대를 통한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기획' 등을 제안하였다.

정동진, 임동규, 지예은(2021)은 코로나 19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변화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그리고 전문대학 115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대학도서관의 직원, 조직, 예산, 업무 그리고 공간의 변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결과, 코로나 19가 대학도서관의 직원 수 및 조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업무와 공간 활용에 있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15개 도서관 중 108개 도서관(94%)이 코로나 19로 인해 서비스를 포함한 기존 업무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산의 경우 67개 도서관(58%)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규모별로는 소규모 대학도서관이 중규모와 대규모 대학도서관에 비해 코로나 19에 더 큰 영향(전체 33개 도서관 중 23개 도서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European

Research Libraries, 2020)는 코로나 19가 유럽 전역의 연구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2020년 10월 16일부터 11월 23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1개국 3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6%가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자료 구입이 증가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코로나 예방을 위해 90.8%의 도서관이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공동사용구역 방역 청소 순으로 조사되었다.

미국도서관협회(ALA, 2020)도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코로나 19 이후 대학도서관과 연구도서관 예산이 대부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 이상의 대학도서관과 연구도서관이 신규채용, 직원교육 예산, 인쇄본 장서 예산,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위한 예산이 취소되거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Connell, Wallis, Comeaux(2021)는 3개 대학의 도서관 통계를 활용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코로나 19 전·후 이용률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루이지애나 주립대학(Louisiana State University)도서관의 경우 원문복사 및 상호대차 서비스와 Ask-a-Librarian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률이 감소하였다. 특히, 도서관 홈페이지는 코로나 19로 인한 도서관 폐쇄 기간 중 25%의 이용 감소를 보였다.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Northeastern Illinois University)도서관의 경우 연구 컨설팅이나 채팅서비스, 원문복사서비스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감소하였다. 발파라이소 대학(Valparaiso University)도서관 또한 채팅서비스 이용은 85% 이상 증가

한 반면 이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세 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도서관 홈페이지 및 소장도서 검색, 디스커버리 시스템 이용, 주요 DB 이용은 감소한 반면, 채팅, Ask-a-Librarian 등과 같은 참고서비스와 연구지원서비스 이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Martzoukou(2021)는 코로나 19로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형 학습이 고등 교육의 ‘뉴 노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온라인 학습으로의 비자발적 전환은 고등 교육에 복잡하고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온라인 교육에 대한 입지가 약한 대학과 대학도서관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대학도서관 변화를 위한 촉매가 될 수 있으며 사서들에게 온라인 교육을 설계하고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임무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코로나 19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업무와 서비스의 변화를 조사하거나 코로나 19의 확산 및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 19가 대학도서관의 현

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3.1 데이터 수집

코로나 19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대응방안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KSDC의 Online Survey를 사용하였으며, 2021년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총 10일간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포는 대학도서관연합(2020, 283, 297-300)을 기초로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소속 54개 회원도서관 중 홈페이지를 통해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38개 도서관과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소속 135개 회원도서관을 합친 총 173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도서관은 총 101개 기관으로 응답률은 58.4%이다.

설문 항목은 <표 1>과 같이 총 4개 영역, 17

<표 1> 설문지 구성

대구분	소구분	문항 수(개)
COVID-19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대응방안	운영방침 변경 기준	4
	대응방안	
	대응의 적절성	
COVID-19가 대학도서관에 미친 영향	도서관에 미친 영향	8
	세부 영역별 영향 정도	
COVID-19 이후 대학도서관의 미래	향후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미칠 영향	2
응답 대학도서관 관련 사항	설립유형, 규모, 소재지	3
합계		17

개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코로나 19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대응방안 관련 질문 4개, 대학도서관에 미친 영향 관련 질문 8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도서관 미래 관련 질문 2개로 이루어져 있다.

3.2 응답기관 특성

설문에 응답한 도서관을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응답 기관을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학 23개(22.8%), 사립대학 78개(77.2%)로 나타났다. 대학 규모별로는 대규모 대학이 49개(48.5%)로 가장 많았으며, 중규모(34개, 33.7%), 소규모(18개, 17.8%)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학 소재지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43개(42.6%)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권(26개, 25.7%), 충청권(14개, 13.9%), 전라권(13개, 12.9%) 순으로 나타났다.

3.3 데이터 분석

설문 분석은 SPSS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순응답형 문항은 빈도분석을 통해 응답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였다. 등간척도(리커트 5점 척도) 문항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을 그룹화하여 비교하였다. 특히 코로나 19가 대학도서관에 미친 영향력을 세부요인별로 비교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우선순위형 문항은 각 순위별로 빈도분석과 함께 순위별 응답빈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코로나 19가 영향을 준 대학도서관 세부요소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요소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세부요인이 대학도서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응답 대학의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설립유형	국공립대학	23	22.8
	사립대학	78	77.2
규모	대규모(10,000명 이상)	49	48.5
	중규모(5,000명~10,000명)	34	33.7
	소규모(5,000명 미만)	18	17.8
소재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43	42.6
	충청권	14	13.9
	전라권	13	12.9
	경상권	26	25.7
	강원권	4	4.0
	제주권	1	1.0
합계		101	100.0

3.3.1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운영방침 변경 근거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도서관 운영방침을 변경한 경우 무엇을 기초로 결정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도서관 운영방침을 변경하는데 사용된 근거로 1순위는 '국가 질병통제센터 방역지침'이 60.4%로 가장 높았고, 2순위는 '대학당국 및 관련 부서 결정'(53.5%), 3순위는 '타 대학도서관 대응방안 참고'(46.5%), 4순위는 '도서관 자체 결정'(49.5%)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순위는 응답 값의 5배수, 2순위는 4배수, 3순위는 3배수, 4순위는 2배수, 5순위는 1배수로 환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국가질병통제센터 방역지침'이 43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학 당국 및 관련 부서 결정'(431점), '타 대학도서관 대응방안 참고'(275점), '도서관 자체 결정'(267점) 순으로 나타나 순위별 빈도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운영방침 변경 근거에 대한 국공립대학도서관과 사립대학도서관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순위에 차이가 없었다. 대학 규모별로 비교한 결과, 대규모와 중규모 대학도서관의 경우 '국가질병통제센터 방역지침'을 1순위로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소규모 대학도서관은 '대학 당국과 관련 부서 결정'을 1순위로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Frederick과 Wolff-Eisenberg(2020, 13)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학도서관들의 경우 코로나 19에 따른 운영방침 변경의 근거로 '다른 대학도서관의 대응방안이나 정책 참고'와 '질병관리센터(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같은 국가 또는 연방기관의 지침 참고'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3.3.2 코로나 19 대응방법

코로나 19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대응방법을 복수응답형으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해당 문항의 경우, 101명의 응답 기관이 복수응답을 통해 총 1,014건을 선택하였다. 응답 수(1,014건) 기준 비율(%)을 살펴보면, '발열 체크 및 손 세정제 제공'과 '열람석 간 거리 두기'가

<표 3>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운영방침 변경 근거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종합 점수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대학 당국 및 관련 부서 결정	39	38.6	54	53.5	4	4.0	4	4.0	0	0.0	431
타 대학도서관 대응방안 참고	0	0.0	14	13.9	47	46.5	38	37.6	2	2.0	275
국가질병통제센터 방역지침	61	60.4	19	18.8	15	14.9	6	5.9	0	0.0	438
도서관 자체 결정	1	1.0	14	13.9	35	34.7	50	49.5	1	1.0	267
기타	0	0.0	0	0.0	0	0.0	3	3.0	98	97.0	104
합계	101	100.0	101	100.0	101	100.0	101	100.0	101	100.0	-

〈표 4〉 코로나 19 대응방법

구분	빈도	비율(%)	
		응답 수 기준 (N=1,014건)	응답 기관 수 기준 (N=101명)
도서관 운영 시간 축소 및 폐쇄	97	9.6	96.0
발열 체크 및 손 세정제 제공	99	9.8	98.0
열람석 간 거리 두기	99	9.8	98.0
도서관 시설의 정기적인 소독	93	9.2	92.1
제공서비스의 온라인 전환	68	6.7	67.3
도서관 자체 회의 및 모임 인원 제한	70	6.9	69.3
직원 교육(세미나 등) 불참 또는 비대면 형태 참여	84	8.3	83.2
반납도서 소독	66	6.5	65.3
폐가식 서가 운영	30	3.0	29.7
대출 도서 택배 서비스	33	3.3	32.7
도서관 출입 인원 제한	33	3.3	32.7
직원의 재택근무	36	3.6	35.6
출입 명부 작성(QR 코드 포함)	79	7.8	78.2
외부인 출입 제한	91	9.0	90.1
자료 이용(대출 권수 및 대출기한) 확대	36	3.6	35.6
합계	1014	100.0	-

9.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도서관 운영 시간 축소 및 폐쇄’(9.6%), ‘도서관 시설의 정기적인 소독’(9.2%), ‘외부인 출입 제한’(9.0%), ‘직원 교육(세미나 및 워크숍 포함) 불참 또는 비대면 형태 참여’(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관 수(101명)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발열 체크 및 손 세정제 제공’과 ‘열람석 간 거리 두기’(98.0%)는 2개 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서관 운영 시간 축소 및 폐쇄’(96.0%), ‘도서관 시설의 정기적인 소독’(92.1%), ‘외부인 출입 제한’(90.1%)의 응답률도 90% 이상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원의 재택근무’(35.6%), ‘자료 이용(대출 권수 및 대출기한) 확대’(35.6%), ‘대출 도서 택배 서비스’(32.7%), ‘도서관 출입 인원 제한’(32.7%), ‘폐가식 서가 운

영’(29.7%)을 실시하는 도서관 비율(%)은 약 3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미국의 대학도서관도 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응방법에 있어 국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Hinchliffe와 Wolff-Eisenberg(2020, March 13)의 조사에 따르면 213개 대학도서관 중 가장 많은 79%의 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손 세정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코로나에 대비한 최신 안전 가이드 제공’, 그리고 ‘방역을 위한 관리 점검 확대 및 키보드를 비롯한 각종 장비의 정기적인 소독’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대학도서관들도 코로나 19에 대처하기 위해 ‘도서관 내 손세정제 비치’(90.8%)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화

장실 및 공동사용 구역의 정기적인 소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Association of European Research Libraries, 2020).

Hinchliffe와 Wolff-Eisenberg(2020, October 8)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대학도서관이 '반납된 책을 일정 시간 격리한 후 처리하는 방법'과 '각종 장비 세척 및 이용자에게 손소독제 제공'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19에 대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대응방법과 대체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3 코로나 19 대응의 적절성

대학도서관의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많은 대학도서관들이 코로나 19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5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매우 적절하게 대응'(32.7%), '보통'(8.9%), '부적절하게 대응'(3.0%)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없었다.

이를 그룹화하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88.1%로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3.0%)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대학 경영진의 낮은 안전의식', '휴학 및 자퇴 등과 같은 학생들의 학교 이탈을 막기 위해 도서관을 비롯한 대학 시설의 개방 강행' 등이 제시되었다.

3.3.4 코로나 19가 대학도서관에 미친 영향: 운영 전반

코로나 19가 대학도서관 운영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 코로나 19 대응의 적절성

구분	빈도	비율(%)	그룹 비율(%)
매우 부적절하게 대응	0	0.0	3.0
부적절하게 대응	3	3.0	
보통	9	8.9	8.9
적절하게 대응	56	55.4	88.1
매우 적절하게 대응	33	32.7	
합계	101	100.0	

<표 6> 코로나 19가 대학도서관에 미친 영향(운영 전반)

구분	빈도	비율(%)	그룹 비율(%)
매우 부정적 영향	21	20.8	91.1
대체로 부정적 영향	71	70.3	
영향 없음	2	2.0	2.0
대체로 긍정적 영향	7	6.9	6.9
매우 긍정적 영향	0	0.0	
합계	101	100.0	

조사결과 코로나 19가 대학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7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매우 부정적 영향'(20.8%), '대체로 긍정적 영향'(6.9%), '영향 없음'(2.0%)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없었다. 이를 그룹화하면 '부정적인 영향'의 응답률이 91.1%로 '긍정적 영향' 응답(6.9%)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의 경우, '이용자 수의 감소에 따라 도서관의 중요성과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점과 '비대면 수업과 온라인을 통한 정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중요성이 약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서관 개방 축소에 따라 도서관 업무가 줄었다고 생각하는 대학 당국의 시선과 사서들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하였고, 이는 예산과 인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3.3.5 코로나 19가 대학도서관에 미친 영향:

세부 항목별 구분

코로나 19가 대학도서관의 세부 영역, 즉 예산 및 인력 확보, 도서관 인력의 전문성 유지, 자료 및 시설의 이용, 도서관 서비스(프로그램, 교육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과 같이 코로나 19가 대학도서관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산 확보 54.4%, 인력 확보 66.3%, 그리고 전문성 유지의 경우 48.5%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또한, 자료 이용 88.1%, 시설 이용 94.0%, 그리고 서비스의 경우 78.2%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했다.

조사결과, 도서관 시설 이용과 자료 이용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응답이 각각 94.0%,

<표 7> 코로나 19가 대학도서관에 미친 영향(세부 항목)

구분		부정적 영향			영향 없음	긍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대체로 부정적 영향	소계 (그룹)		대체로 긍정적 영향	매우 긍정적 영향	소계 (그룹)
예산 확보	빈도	16	39	54.4	44	1	1	2.0
	비율(%)	15.8	38.6		43.6	1.0	1.0	
인력 확보	빈도	25	42	66.3	31	3	0	3.0
	비율(%)	24.8	41.6		30.7	3.0	0.0	
전문성 유지	빈도	13	36	48.5	36	14	2	15.8
	비율(%)	12.9	35.6		35.6	13.9	2.0	
자료 이용	빈도	26	63	88.1	5	7	0	6.9
	비율(%)	25.7	62.4		5.0	6.9	0.0	
시설 이용	빈도	47	48	94.0	3	3	0	3.0
	비율(%)	46.5	47.5		3.0	3.0	0.0	
서비스	빈도	18	61	78.2	5	15	2	16.8
	비율(%)	17.8	60.4		4.9	14.9	2.0	

88.1%로 높게 나타난 반면, 사서의 전문성 유지와 예산 확보는 각각 48.5%, 54.4%로 나타나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한 도서관 서비스와 사서의 전문성 유지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각각 16.8%와 15.8%로 나타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19가 대학도서관 운영에 미친 영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평균점수는 1점부터 5점 사이에 위치하게 되며, 1점은 매우 부정적, 2점은 대체로 부정적, 3점은 영향 없음, 4점은 대체로 긍정적, 5점은 매우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코로나 19가 대학도서관 운영 전반에 미친 영향은 1.95로 나타나 2점(대체로 부정적)에 근접하였다.

도서관 세부요소별로 살펴보면 '도서관 시설 이용'이 1.62점으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도서관 자료 이용'(1.93점), '도서관 인력 확보'(2.12점), '도서관 서비스'(2.23점), '도서관 예산 확보'(2.33점), '도서관 인력 전문성 유지'(2.56점) 순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코로나 19가 대학도서관의 모든 세부요소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시설과 자료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19의 영향에 대한 도서관 세부요소별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와 같이 '대학도서관 운영 전반'은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시설 이용', '도서관 자료 이용', '도서관 인력 확보' 순으로 약한 정(+)의 관계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대학도서관 운영에 자료, 시설, 서비스, 인력 확보가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도서관 예산과 인력은 매우 강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코로나 19에 따라 도서관 예산과 인력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자료와 시설 사이에도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 19에 따른 대학도서관 운영 전반에 어떠한 세부요인이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8> 코로나 19에 따른 대학도서관 부문별 영향

구분		평균	표준편차
대학도서관 운영 전반		1.95	.712
세부요소	도서관 예산 확보	2.33	.789
	도서관 인력 확보	2.12	.816
	도서관 인력 전문성 유지	2.56	.953
	도서관 자료 이용	1.93	.765
	도서관 시설 이용	1.62	.691
	도서관 서비스(프로그램, 교육 등)	2.23	.979

※ 평균: 1(매우 부정적), 2(대체로 부정적), 3(영향 없음), 4(대체로 긍정적), 5(매우 긍정적)

〈표 9〉 코로나 19의 영향_도서관 세부요소 간 상관관계

구분	대학도서관 운영 전반	도서관 예산 확보	도서관 인력 확보	도서관 인력 전문성 유지	도서관 자료 이용	도서관 시설 이용	도서관 서비스
대학도서관 운영 전반							
도서관 예산 확보	.118						
도서관 인력 확보	.217*	.700**					
도서관 인력 전문성 유지	.071	.231*	.299**				
도서관 자료 이용	.379**	.121	.125	.164			
도서관 시설 이용	.389**	-.011	.098	.007	.499**		
도서관 서비스	.404**	-.033	-.084	.300**	.502**	.483**	

〈표 10〉 대학도서관 운영 전반에 미치는 도서관 세부요인_코로나 19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β)			공차	VIF
대학도서관 운영 전반	(상수)	.664	.241		2.755	.007**		
	도서관 서비스	.233	.073	.320	3.170	.002**	.749	1.335
	도서관 인력 확보	.195	.078	.223	2.510	.014*	.968	1.033
	도서관 시설 이용	.219	.104	.212	2.100	.038*	.747	1.338

R = .510, $R^2 = .260$, 수정된 $R^2 = .237$,F = 11.352, $p = .000^{**}$, Durbin-Watson = 2.215* $p < .05$, ** $p < .01$

다중회귀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0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회귀식의 설명력은 26.0%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은 2.215로 2에 근접하므로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고, 독립변수의 VIF가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

코로나 19의 영향력 관점에서 대학도서관 운영은 '도서관 서비스'($\beta = .320$), '도서관 인력 확보'($\beta = .223$), '도서관 시설 이용'($\beta = .212$) 순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도서관 세부요소들도 대학도서관 운영전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코로나 19로 인한 대학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이 도서관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코로나 19가 대학도서관 인력 확보에 미친 영향도 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6 코로나 19가 향후 대학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에 미칠 영향

코로나 19가 향후 대학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9.3%,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7.9%로 나타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체 응답 비율(%)이 77.2%로 조사되었다. 이와 비교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2.9%로 조사되었다.

<표 11>과 같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코로나 19가 향후 대학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치를 코로나 19로 인한 현재 대학도서관의 영향 정도와 비교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은 현재의 경우 91%, 미래의 경우 77.2%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은 현재의 경우 6.93%, 미래의 경우 12.9%로 나타나 현재 상황과 비교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의 이유로 는 '2020년 이후 코로나 19가 2년여간 지속됨

에 따라 학부생 절반이 도서관을 경험하지 못했고, 이는 향후 도서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대와 필요성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과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해진 이용자에게 대한 도서관 방문 및 시설 이용 독려가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물리적 공간과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의 감소가 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관심의 약화를 불러올 것이며 이는 결국 대학도서관의 중요성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면 향후 대학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의 이유로는 '비대면과 가상공간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대학도서관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해질 것', '전통적인 업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와 세대에 맞는 역할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연구결과의 시사점

조사결과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대응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대학도서관의 현재와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높

<표 11> 코로나 19가 향후 대학도서관에 미칠 영향

구분	빈도	비율(%)	그룹 비율(%)
매우 부정적 영향	8	7.9	77.2
대체로 부정적 영향	70	69.3	
영향 없음	10	9.9	9.9
대체로 긍정적 영향	13	12.9	12.9
매우 긍정적 영향	0	0.0	
합계	101	100.0	

게 나타났다.

코로나 19가 대학도서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의 이유로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0년과 2021년에 입학한 학부생 대다수가 물리적인 도서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 이는 향후 도서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대와 필요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답변이 제시되었다.

대학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의 감소는 인력과 예산 지원의 약화로 이어지고 부족한 시설과 인력, 그리고 열악한 서비스 제공은 또 다시 이용의 감소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코로나 19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근거로 제시된 대학도서관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와 새로운 시대 및 세대에 맞는 역할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응답은 향후 대학도서관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19에 따른 미래 대학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기대치가 현재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 19로 인한 현재 대학도서관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향후 효과적으로 극복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다. 따라서, 온라인 언택트 서비스의 개발,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교수 및 대학원생을 위한 주제별 연구정보서비스 강화, 정보활용교육과 논문 작성교육 그리고 주제별 온라인 튜토리얼 서비스의 제공,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도서관 체험 등 변화된 시대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세대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대학도서관이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방침을 변경할 경우 국가 질병통제센터 방역지침과 대학 당국 및 관련 부서 결정에 따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물론, 국가적 차원의 문제 발생 시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지침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서관도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정동진, 임동규, 지예은(2021, 24)에 따르면, 115개 도서관 중 82개 대학도서관(71%)이 비상 상황에 대비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문제 발생 시 대학도서관의 빠른 대응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상황 대처를 위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가 대학도서관의 예산, 인력 확보, 자료, 시설, 그리고 서비스 이용 등 모든 세부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대학도서관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성 유지의 경우 48.5%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국도서관협회(ALA, 2020)는 코로나 19에 따른 대학도서관 직원교육 예산에 대한 현재 상황과 향후 1년 후의 상황에 대한 예측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 예산이 삭감되거나 취소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상황에 대한 대처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지

원이 감소할 경우 현재는 물론 미래 대학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비대면 교육과정의 개발과 개별 대학도서관의 자체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한 전문성 유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현안의 해결은 모든 대학도서관의 공통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개별 대학도서관의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간 공동의 협력과 문제 해결 노력도 필요하다.

Farkas(2020)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도서관의 많은 사서들은 이용자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자신들의 복지에 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공통된 현안을 논의하고, 코로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사서들을 위한 홍보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강력한 온라인 협의체가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사서 역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보수집능력에 전문성을 가진 대학도서관이 대학 당국과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인 취업, 창업, 그리고 진로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송유성, 2016).

또한, 학술정보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교수 및 학생을 위한 연구지원 서비스 및 분석 도구 활용교육, 학술정보 분석과 안내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기영 외, 2020, 45).

향후 대학도서관은 디지털화된 인터넷상의 교육자료는 물론, 전 세계 도서관, 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기관들과의 가상공간을 통한 교류가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

은 교육자료를 찾아내 평가하고 조직적으로 짜임새 있게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큐레이션 시스템(Curation System)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차후에 인공지능(AI)이 이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에서는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 디지털 큐레이터(Professional Digital Curator) 양성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확장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김형률, 2020).

유럽연구도서관협회(LIBER, 2020, December)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대학도서관이 주력해야 할 활동으로 ‘서비스의 재규정’, ‘디지털 기술 교육’, ‘물리적 공간의 재구성’, ‘다양한 디지털 자료의 확보’ 등을 언급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앞당겨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오픈 액세스 자료의 증대 방안 그리고, 도서관 공간에 대한 재정의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5. 결 론

코로나 19가 경제활동과 커뮤니케이션 등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학 수업이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학 내 다중밀집시설인 대학도서관은 역할과 서비스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과 가상공간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지만, 전면적인 서비스 및 운영상황의 변화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한 대학도서관에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대학도서관의 코로나 19 대응은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예산 및 인력 확보, 직원의 전문성 유지, 자료 및 시설 이용, 그리고 서비스 등을 포함한 대학도서관 운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고 많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료와 시설 이용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서비스 제공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용자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2년여간 대학도서관 공간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학생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 따라 대학도서관은 새로운 환경과 세대에 맞는 서비스 개발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가 대학도서관의 미래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도 중요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공공도서관협의회 (2020). 도서관을 온택트(Ontact)하다!: 코로나 19 공공도서관 운영사례집.
출처: https://kpla.kr/?module=Board&action=SiteBoard&sMode=VIEW_FORM&iBrdNo=3&iBrdContNo=86&sBrdContRe=0&sSearchField=&sSearchValue=&CurrentPage=1&type=#okarea
- 국립중앙도서관 (2020. 9. 4.).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0 도서관정책포럼 [Video].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0jgUahHVYLM>
- 김기영, 오세훈, 유현숙, 정지윤, 홍보현 (2020). 대학도서관 사서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국립중앙도서관.
- 김정은, 강혜선 (2021). COVID-19 이후 국가도서관 운영 전략.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2.
- 김형률 (2020. 09. 16.). [칼럼] 인공지능 시대, 포스트 코로나... 대학의 트랜스포메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인공지능신문.
출처: <http://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7711>

- 노영희, 강필수, 김윤정 (2020).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도서관 온라인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185-210.
<http://doi.org/10.16981/kliss.51.4.202012.185>
- 박소현 (2020). '언택트' 시대에 '컨택트'를 위한 O2O(Online to Offline)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문화, 61(4), 5-8.
- 박태연, 오효정 (2020). 미디어 이슈를 통해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서관 서비스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251-279. <http://doi.org/10.16981/kliss.51.3.202009.251>
- 반자연, 이승혜, Panarelli, L. (2020). COVID-19에 대응하는 대학도서관 공간활용 실태조사: 미국 메사추세츠주 대학도서관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2(2), 217-220.
- 송유성 (2016). 대학도서관 전략적 개발 방안: 일리노이대학교 대학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2016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강연 자료집, 371-383.
- 유혜은, 배원빈, 김슬, 윤준섭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 현황 분석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7, 221-224.
- 윤희윤 (2021).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도서관 트릴레마 담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1), 1-26.
<http://doi.org/10.16981/kliss.52.1.202103.1>
- 이지옥, 이용재 (2021). 뉴노멀시대 대학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2), 357-377. <http://doi.org/10.16981/kliss.52.2.202106.357>
- 장우권 (2020).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가 대학도서관에 미친 영향.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7, 215-220.
- 정동진, 임동규, 지예은 (2021). 코로나19로 인한 대학도서관 환경 변화 조사보고서. 서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도서관정책연구소.
- 정진한 (2020. 4. 28.). [칼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대학도서관. 한국대학신문.
출처: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8692>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2020). 대학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0, May 12). Libraries Respond: COVID-19 Survey. Available: <https://www.ala.org/tools/covid/libraries-respond-covid-19-survey>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1, April 21). State of America's Libraries Special Report: COVID-19. Available: <https://www.ala.org/news/press-releases/2021/04/ala-releases-state-america-s-libraries-special-report-covid-19>
- Association of European Research Libraries (2020, December 11). [LIBER News] The Impact of Covid-19 on Research Libraries Across Europe. Available: <https://libereurope.eu/article/covid19-survey-research-libraries-europe/>

- Connell, R. S., Wallis, L. C., & Comeaux, D. (2021).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Use of Academic Library Resources. *Information Technology & Libraries*, 40(2), 1-20. <https://doi.org/10.6017/ital.v40i2.12629>
- Cox, C. (2020, June 5). Changed, Changed Utterly. *INSIDE HIGHER ED*. Available: <https://www.insidehighered.com/views/2020/06/05/academic-libraries-will-change-significant-ways-result-pandemic-opinion>
- Farkas, M. (2020, November 2). Our Collective Power: coming together for mutual aid and advocacy. *American Libraries*. Available: <https://americanlibrariesmagazine.org/2020/11/02/our-collective-power-librarian-advocacy/>
- Frederick, J. K. & Wolff-Eisenberg, C. (2020, December 9). [RESEARCH REPORT] Academic Library Strategy and Budget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sults from the Ithaka S+R US Library Survey 2020. *ITHAKA S+R*. Available: <https://doi.org/10.18665/sr.314507>
- Hinchliffe, L. J. & Wolff-Eiseberg, C. (2020, March 13). [BLOG POST] Academic Library Response to COVID19: The First 24 Hours of Survey Data. *ITHAKA S+R*. Available: <https://sr.ithaka.org/blog/academic-library-response-to-covid19/>
- Hinchliffe, L. J. & Wolff-Eiseberg, C. (2020, October 8) Indications of New Normal: A (Farewell) Fall 2020 Update from the Academic Library Response to COVID-19 Survey. Available: <https://sr.ithaka.org/blog/indications-of-the-new-normal/>
- Martzoukou, K. (2021). Academic libraries in COVID-19: a renewed mission for digital literacy. *Library Management*, 42(4/5), 266-276. <https://doi.org/10.1108/LM-09-2020-013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n, J. Y., Lee, S. H., & Panarelli, L. (2020). Survey of academic library space use in COVID-19 era: Focusing on academic libraries in massachusetts, US.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Conference Proceedings*, 22(2), 217-220.
- Chang, W. K. (2020). The effect of COVID-19 on university libraries.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Proceedings*, 27, 215-220.
- Jeong, D. J., Lim, D. K., & Ji, Y. E. (2021). University library environment change survey report due to COVID-19. Seoul: The Korea University & College Library Association,

- Library Policy Research Institute.
- Jung, J. H. (2020, April 28). [column] University library in the post-COVID-19 era. University News Network. Available: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8692>
- Kim, G. Y., Oh, S. H., Yu, H. S., Jeong, J. Y., & Hong, B. H. (2020). Development of Curriculum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ibrarians in University Libraries. National Library of Korea.
- Kim, H. R. (2020, September 16). [column] AI era, Post corona... university transformation is a must, not an option!'. Artificial intelligence times. Available: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7711>
- Kim, J. E. & Kang, H. S. (2021). National Library Operation Strategy After COVID-19. National Library of Korea Issue Paper, 2.
- Korean Public Library Association (2020). Ontact the Library: Corona 19 Public Library Operation Case Book. Available: https://kpla.kr/?module=Board&action=SiteBoard&sMode=VIEW_FORM&iBrdNo=3&iBrdContNo=86&sBrdContRe=0&sSearchField=&sSearchValue=&CurrentPage=1&type=#okarea
- Lee, J. W. & Lee, Y. J. (2021). A study on the sustainable academic library services in the new normal ag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2), 357-377. <http://doi.org/10.16981/kliss.52.2.202106.357>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0, September 4). New daily life and challenges of the library after Corona. [Video]. Available: <https://www.youtube.com/watch?v=0jgUahHVYLM>
- Noh, Y. H., Kang, P. S., & Kim, Y. J. (2020). A study on activation measures of library's online services to overcome COVID-19.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4), 185-210. <http://doi.org/10.16981/kliss.51.4.202012.185>
- Park, S. H. (2020). O2O(Online to Offline) library service for 'contact' in the era of 'untact'. KLA journal, 61(4), 5-8.
- Park, T. Y. & Oh, H. J. (2020). A study on library services in the post-COVID era through issues on medi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3), 251-279. <http://doi.org/10.16981/kliss.51.3.202009.251>
- Song, Y. S. (2016). A strategic approach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University Library. 'University Library 2016' Lecture Materials, 371-383.
- The Korea University & College Library Association (2020). University Library Yearbook.

Seoul: The Korea University & College Library Association.

Yoon, H. Y. (2021). Discourse of library trilemma in the context of global megatrend.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1), 1-26.

<http://doi.org/10.16981/kliss.52.1.202103.1>

Yu, H. E., Bae, W. B., Kim, S., & Yoon, J. S. (2020). A study on academic information services offered by university librar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proceedings*, 27, 221-224.